

지역 소식통

고창군, 관내 작은도서관 4개소
어린이집 원아대상 문화행사 운영

고창군이 봄을 맞아 관내 작은도서관 4개소(고수해마루, 이산선운산, 대산큰벌, 무장글생)에서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문화행사는 '봄날의 동시 나들이'라는 주제로 이산 선운산도서관에서 3일과 10일, 고수 해마루도서관은 4일과 12일, 무장 글생도서관은 4일과 11일, 대산 큰벌도서관은 6일과 13일에 각 도서관별 2회씩 운영된다.

문화행사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야한 동시 및 동화 낭송을 통한 독서지도, 임체스티커 꾸미기 및 곤충 목걸이 만들기 등 봄 분위기를 한껏 느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동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접할 수 있어 유아가 어휘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이 길지 않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에도 적합하며 둑후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 "작은도서관을 통해 면 단위 아동과 면민들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 '꿈따드림' 성료

2017년 정읍시청소년진로직업박람회 '꿈따드림'이 청소년문화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청소년과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박람회는 시와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정읍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 자기주도적인 진로 설계 능력을 높이고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훌랜드 간이검사를 통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검사하는 '자아탐색관'과 전북과학대학교의 전북경찰청, 전북과학종합연합회, 내장산관리사무소 등이 참여한 '대학과 기관연계관', 다양한 직업을 직접 체험하고 상담하는 '직업체험관', '이벤트관' '청소년어울림관' 등 총 28개 부스가 운영됐다.

올해로 세 번째 진로직업박람회를 주관하고 있는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탐색의 장을 열어주고 스스로 진로설계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진로직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태테마관광 육성공모사업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선정

3억4천만원 투입 구절초 향수 콘텐츠 개발 사업 등 추진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공모 사업인 '2017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7천 민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지원받게 됐다"며 "획보한 국비에 시비 1억7천만원을 더한 총 3억 4천만원을 투입해 구절초 테마공원의 한국적인 디자인과 연출, 구절초 향수 콘텐츠 개발사업 등 H/W사업과 관광 상품 기획, 프로그램 개발 등 S/W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화행사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디야한 동시 및 동화 낭송을 통한 독서지도, 임체스티커 꾸미기 및 곤충 목걸이 만들기 등 봄 분위기를 한껏 느끼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동시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접할 수 있어 유아가 어휘력 발달에 도움이 되고 집중력이 길지 않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에도 적합하며 둑후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면서 "작은도서관을 통해 면 단위 아동과 면민들로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김생기 시장은 "이번 사업은 구절초 테마공원의 시계절 명소회를 견인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읍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은 구절초축제 장소로서 해가 거듭될 수록 전국적인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구절초 향토자원 진흥특구와

지역개발촉진지구(국토교통부) 지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자원으로 국가적인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한편 문광부는 전국 각 지역의 특색 있고 고유한 생태테마자원을 핵심 관광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생태테마 관광 육성사업 신청 29개 지역 중 최종 사업지 8개 지역을 지난달 21일에 발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5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100만원 지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더 많은 출산기정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폭넓게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기존 둘째아이 출산 시에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오는 5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지급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5월 1일 출생아부터 첫째는 100만원(일시금), 둘째 200만원(일시금), 셋째 500만원(분할지급), 넷째 700만원(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1,000만원(분할지급)이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모가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면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산장려금 신청 대상 군민은 해당 주소지 읍·면에 출생 신고 후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군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부터 육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왔다"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 전후의 제반 가계비용 부담을 덜고 출산친화적 인 기반 환경 조성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북면, 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

제14회 북면 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가 최근 북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북면 면민의 날 제전위원회(위원장 강민수)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출향인, 기관·단체장 등 약 40여명의 내외빈과 지역민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화합한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지역발전 불사상 출향인 최상호(한교리)씨, 제전위원회 강민수(군수) 주관으로 열린 행사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출향인, 기관·단체장 등 약 40여명의 내외빈과 지역민 등 모두 1000여명이 참석했다.

농악단의 사물놀이가 펼쳐졌고, 윷놀이 등 4개 종목에 걸친 민속경기와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이 진행돼 화합한마당의 장을 연출했다.

면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면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을 다지며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계화 간척지 쌀 축제 '성황'

제16회 계화면민의 날을 기념하고 계화간척지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화 간척지 쌀 축제가 면사 무소 앞 광장에서 김종규 부인군수를 비롯하여 조병서 도의원과 면내 주요기관단체장, 250여 명민이 참석한 가운데 박병무 계화면체육진흥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식전행사인 풍물놀이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시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계화간척지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화간척지 쌀 자랑대회, 민속체육경기, 계화면 고향 특산품 판매장 운영, 면민노래자랑, 경품행사 등이 함께 마련되어 다채롭고 흥겨운 면민 행사가 되었다.

더욱이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제에 참석하여 계화 간척지 쌀 축제 축하와 계화 간척지 쌀 자랑 대회 품평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 마련되었다.

대전광역시 용문동 김나연 동장은 맛좋은 계화쌀밥에 시골인심과 정까지 듬뿍 안고 갈 수 있어 좋다며 계화면을 잊지 않고 계화쌀 흥보대사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다시 부인군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쌀을 주제로 한 계화 간척지 쌀밥 자랑 대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온 축제 속 뜻 깊은 행사로써 각 36개 마을에서 준비해 출품한 이색 쌀밥을 선보였고 전년의 삼 합 마실 때, 진미가 더해지는 밥 해评议인 쌀밥, 먹을수록 맛있는 밥 등 기발한 밥 이름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맛으로 한번 더 발길을 잡았다.

이평종계화면장은 "전국 최초로 간척 영농 균대회를 이룬 계화 간척지를 새민금 농업용지와 연계 새로운 간척농업 8가 신사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고 계화간척지를 간척 영농의 거점으로 만들어 희망이 있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의 개최

정읍시가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필 위원장 주재로 2017년도 국제교류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국제 교류 성과인 대한민국-리투아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정읍농악 초청 공연과 '일본 나리타시 학생 정읍 홈스테이', '서주시 국제미술교류전', '서주시 국제체육회 방문' 등의 추진 결과를 분석했다.

이어 올해 2월 있었던 중국 위해시 유공도 방문 성과 보고와 함께 향후 교류 확대 방안 등 2017년 국제교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국제 교류 추진과 관련, 중국 서주시와의 정기적인 체육

교류단 교류를 통한 양 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올해로 우호결연 15주년을 맞이하는 일본 나리타시와는 한 일 고대문화 교류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국제 교류 성과인 대한민국-리투아니아 수교 25주년 기념 정읍농악 초청 공연과 '일본 나리타시 학생 정읍 홈스테이', '서주시 국제미술교류전', '서주시 국제체육회 방문' 등의 추진 결과를 분석했다.

이어 올해 2월 있었던 중국 위해시 유공도 방문 성과 보고와 함께 향후 교류 확대 방안 등 2017년 국제교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올해 국제 교류 추진과 관련, 중국 서주시와의 정기적인 체육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창군 교류를 통한 양 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올해로 우호결연 15주년을 맞이하는 일본 나리타시와는 한 일 고대문화 교류전을 가질 예정이다.

수강생 모집 후 프로그램은 오는 24일부터 10월초까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및 고창중학교 강당에서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첨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봉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봉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머로 놓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집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송을 맞으며 영글어서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봉주
Premium Ohdi Wine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고창군민은 이달 14일까지 고창군청 차지행정과 교육지원팀과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수강생 모집 후 프로그램은 오는 24일부터 10월초까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및 고창중학교 강당에서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